
후쿠시마의 눈물

김정희 지음 | 오승민 그림 | 최열 감수

5, 6학년 중심 학년군

국어: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다.
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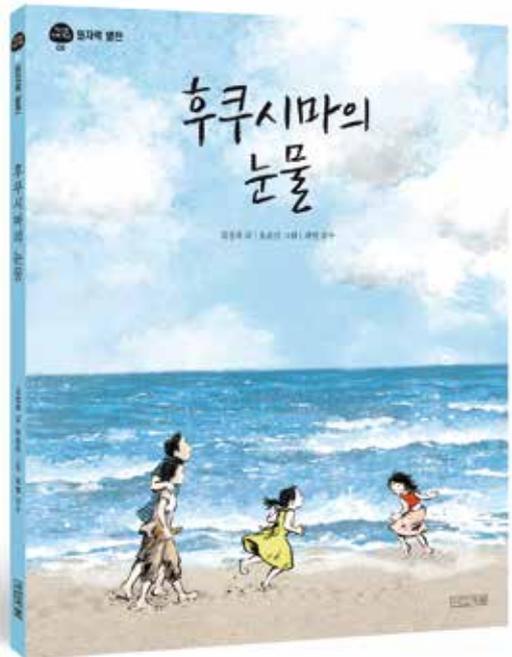
사회: 이웃 나라들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교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협력의 태도를 기른다.
지구촌의 주요 환경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 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도덕: 세계화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을 토론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

1, 2학년 안전한 생활

3, 4학년

국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일본 후쿠시마 현의 작은 도시에서 평화롭게 살던 요시코네 가족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얼마나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그린 그림책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원전 폭발로 새어 나온 방사능은 색깔도 맛도 냄새도 없지만, 대량으로 누출되면 생명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이 책은 이러한 원자력 발전의 문제를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인간의 도리, 인류 공동체의 생존과 연결된 문제로 생각하게 한다.

학습 목표

이 책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2011년 3월 11일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와 그 사고로 무너진 아이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는 6년이나 지났지만 사고의 후유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그 범위는 후쿠시마는 물론 일본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언제 이 사고가 완전히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한 피해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핵 마피아와 일본 정부는 슬그머니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핵의 공포를 분명히 느껴 놓고 '우리 방식은 다르다'로 감추고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막무가내식 홍보만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색깔도 맛도 냄새도 없는 방사능의 위험을 아이들에게 알리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결국 쓰리마일,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보여 준 인간의 무능과 상처를 그대로 알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는 미래에는 더 이상 핵이 아니라 햇빛 모아, 바람 모아 에너지를 만들고 나아가 자연과 더불어 살기를 바라며 이 책을 읽어 주게 됩니다. 특히 이 책은 굳이 원자력 발전과 방사능 누출 과정 등의 어려운 이야기를 말하지 않더라도 평범한 아이의 삶을 저항할 방법도 없이 송두리째 바뀌 버리는 모습을 일기처럼 보여 줘 그 고통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 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시다.
- ② 우리나라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시다.
- ③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주인공에게 일어난 사건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고 비슷한 사례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원전 사고의 피해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시다.
- ④ 세계 여러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탈핵을 선언하는 까닭을 찾아보시다.
- ⑤ 나는 어떤 에너지를 쓰고 싶은지,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할지 생각해 보고 자신의 에너지 생활을 다짐해 보시다.



책 읽기 전 나눌 수 있는 질문과 활동

▶ 후쿠시마는 어디일까요? 2011년 3월 11일,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 일본의 지도를 이용해서 보여 줍니다.
- 인터넷에 아직 남아 있는 후쿠시마 사고의 사진을 보여 줍니다. 지진과 쓰나미 사진, 원전 폭발 사진, 그 후의 텅 빈 마을 모습 등을 함께 봅니다.
- 이곳에 살던 아이의 뒷이야기를 들려줍니다.



▶ 고학년은 후쿠시마를 일본의 지명이자, 대지진이나 쓰나미가 일어난 곳으로 기억하는 편입니다. 쓰나미가 일어난 당시의 끔찍한 모습만 기억하고 그 사고는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 사실을 알려 줍니다.

▶ 우리나라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에, 얼마나 있을까요?

-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스물네 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열 개를 더 지을 예정입니다.
- 전남 영광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해안에 있으며 이미 작년에 수백 차례 지진이 발생한 경주와 가까운 곳에 열 개가 있습니다. 게다가 부산 고리 원전은 세계에 있는 원전 가운데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 경북 울진은 후쿠시마와 비슷한 환경의 시골인데 후쿠시마보다 훨씬 많은 여섯 개가 가동 중이고, 네 개를 더 짓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지어진 곳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 굳이 우리나라를 살펴보는 까닭은 후쿠시마의 이야기가 후쿠시마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진에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님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

▶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에 요시코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 그림을 다시 보며 찾아봅시다.
- 지진과 쓰나미 피해: 지진과 쓰나미로 건물과 집들이 다 부서졌다, 언니가 죽었다, 이재민이 되어 체육관에서 보급품을 받아야 했다 등
- 방사능 피해: 원자로가 폭발해서 마을을 떠났다, 방사능 때문에 다니던 학교에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방사능 위험 지역이라서 생활필수품 공급이 중단되었다, 방사능 때문에 삼촌과 고모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방사능 때문에 방호복을 입고 방호 마스크를 쓰고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두르고 다녀야 했다, 방사능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주눅이 들었다, 가는 곳마다 방사능 수치 검사를 하고 병원에 다녔다, 언제 증상이 나타날지 몰라 불안했다, 마을로 돌아가지 못해 임시 주택에 살았다,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살기가 어려워졌다, 마을에 살던 동식물들도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몇 년이 지나도 고향에 살던 마을로 돌아갈 수가 없다 등



▶ 지진 및 쓰나미 피해와 방사능 피해를 따로 적은 까닭은 방사능 피해는 계속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아이들의 대답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지 않으면 전기가 정말 부족할까요?

- 책 27쪽에 “방사능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원자력 발전소는 왜 만든 거예요?”라는 요시코의 질문에 엄마가 한 대답을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 “정말 부족할까?”라고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
-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세계에서 전기를 많이 쓰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했음을 말해 줍니다. 일본 국민들이 모두 아껴 쓰기도 했지만 전기 사용량이 많이 나오는 여름과 겨울에도 에너지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려 줍니다.
- 햇빛과 바람 같은 재생 에너지로도 충분히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 우리나라도 요시코 엄마의 대답과 같은 이유를 대며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 유럽과 미국은 이미 원자력 발전소문을 닫고 있음을 알려 줍니다.

➔ 내가 요시코라면 마을로 돌아갈까요?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요?

- 일본 정부는 거의 반강제로 후쿠시마 사람들에게 이제 괜찮으니 후쿠시마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요시코라면 어떻게 할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그래도 고향이니까 가겠다, 방사능이 남아 있다면 절대 안 가겠다 등

➔ 히로시마와 후쿠시마에서 원자 폭탄과 방사능 피해를 입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사람의 욕심'은 무엇 일까요?

-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사람의 욕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더 편하고 싶은 욕심, 더 많은 전자 제품을 갖고 싶은 욕심,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욕심,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욕심, 인간이 다 갖겠다는 욕심 등



함께할 수 있는 창의적 활동

➔ 내가 진짜 깨끗한 에너지 발전소!

- 원자력 말고 다른 에너지 자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바람, 햇빛, 물, 바이오매스 에너지(가축 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 에너지 자원을 큰 종이나 전지에 그림으로 크게 그립니다.
- 얼굴이 들어가도록 크게 구멍을 뚫거나 가면 형태로 만듭니다.
-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아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보여 주며 교사가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가 가축 분뇨나 음식물 쓰레기로 변신해도 아이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 이런 에너지 발전소도 자연재해로 무너질 수 있고 짓기 위해서 아주 큰 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단지 수명이 다 되어 문을 닫은 이후에도 그 폐기물을 없애려면 십만 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 자원이 더 깨끗하고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임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합니다.



➔ 나비 행진 놀이

- 누에가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이파리를 먹어 치우면 분명 나무가 죽어 버릴 텐데…….” 나무가 대답합니다. “너는 곧 나비가 될 거야. 나비가 되면 누구도 잎을 먹지 않는단다. 꽃에 있는 꿀을 찾게 되지. 꿀의 달콤함에 취해 춤도 춘단다. 그러면 꽃이 열매를 맺지.” 나뭇잎을 다 먹어 치울까 봐 걱정하던 애벌레가 생명의 꽃을 피우는 나비가 되어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나비 행진을 이야기해 줍니다.
- 이제 자연과 에너지를 잡아먹기만 했던 애벌레가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비로 변신해 봅시다.
- 각자 나비 날개를 만듭니다. 이때 나비 날개 재료는 교실 사정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종이 박스를 이용하면 크레파스와 가위로 날개를 쉽게 꾸밀 수 있습니다. 교사는 고무줄 등을 미리 준비하여 날개에 달아 주어서 가방처럼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합니다.
- 날개에 탈핵을 바라는 글귀를 적어도 좋습니다.
- 나비 날개를 메고 음악을 틀고 다 함께 복도나 운동장에서 행진을 합니다.



▶ 날개는 가능하면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밉니다. 교사가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만든 날개를 달고 함께하는다면 아이들은 더욱 멋지게 활동하고 다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탈! 핵!

- 직접 날개 만들기를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노란색 도화지를 이용해서 나비를 접습니다.
- 나비의 날개에 탈핵을 바라는 글귀를 적습니다.
- 높은 곳에서 나비 날려 보기, 큰 판에 다시 노란 나비를 붙여 큰 글자나 그림을 만들어 전시판 만들기, 나비를 손에 들고 행진하기 등의 활동을 교실 사정에 맞게 운영하면 됩니다.

▶ 다양한 나비 접기는 종이접기 책에 나오므로 수준에 따라 골라 접으면 됩니다.

